



멈추지 않는 게임사들의 블록체인 사업 확장

- 블록체인 사업을 추진 중인 국내 대표적인 게임사 위메이드, 카카오게임즈, 컴투스 및 넷마블은 가상화폐 시장 부진에 불구하고도 블록체인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확장 중인 것으로 파악
- 위메이드는 위믹스 기반 메인넷을 9월에 오픈 가능하다고 발표했으며, 컴투스는 8월 9일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2022에서 메인넷 'XPLA'(엑스플라)를 8월 중 본격 가동한다고 밝힘
 - 메인넷은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 시스템 운영을 통해 디지털 화폐 생성 및 다른 탈중앙화된 어플리케이션을 생성 할 수 있는 독자적인 생태계로 블록체인 사업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 카카오게임즈는 크로스체인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이더리움 기반 확장성 플랫폼 '폴리곤'과 제휴를 맺었으며 1H23까지 6종의 블록체인 신작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힘
 - 크로스체인은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연결해주고 상호 호환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필요한 수수료 등에 대한 문제를 돕는 역할을 하며 크로스 체인 브릿지를 통해 카카오게임즈의 블록체인 기반 콘텐츠들을 다른 체인에서 활용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 넷마블은 7월 29일 블록체인 기반 캐주얼 슈팅 게임 '골든브로스'를 글로벌 출시했음
- 한편 글로벌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소식에 국내 블록체인 사업을 추진 중인 게임사들이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
 - 코인베이스는 블랙록의 200여개 기관투자자가 이용중인 투자관리 플랫폼 '알라딘'에 암호화 거래 및 보관, 파이낸싱, 데이터 보고 등 서비스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



Compliance Notice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자나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판단 3단계 (6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

